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서 장애아동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박 명 숙**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과 비교할 때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장애아동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대유발가능성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장애자녀를 둔 150명의 장애아동 부모들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도구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정도와 학대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애아동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로 인해 비교적 심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태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부모의 학력, 수입, 사회활동 여부, 정부의 지원여부,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여부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계식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부모의 사회활동여부는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대행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으로써, 장애아동 부모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와의 관련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장애아동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주제어: 아동학대, 장애,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서비스, 사회적 지원

* 이 논문은 2001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 서 론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우리사회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면서, 학대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각 분야에서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유발의 위험성을 지닌 구체적인 요인들을 규명해 내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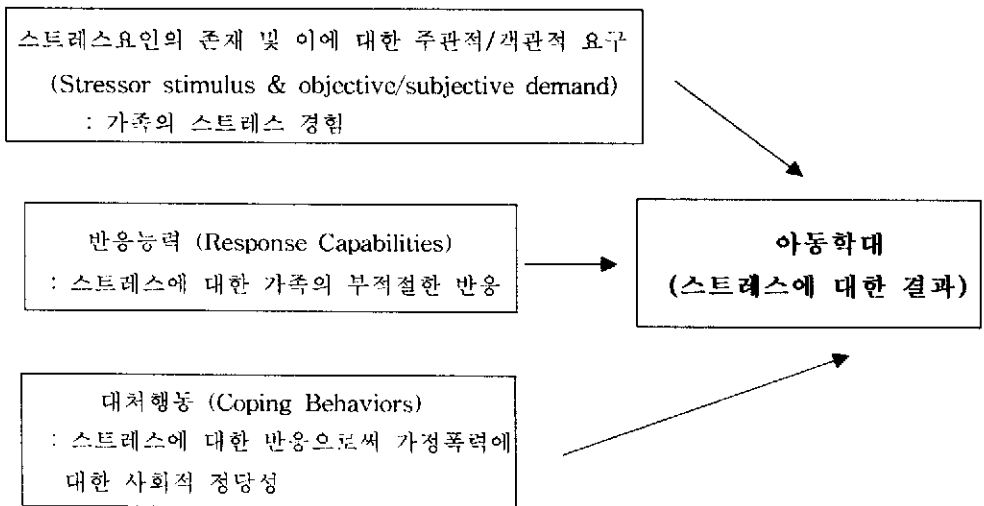
아동학대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경향은 아동학대의 원인을 단선론적인 인과관계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박명숙, 2000),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대의 위험에 보다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각종 질병이나 사회적 사고의 발생과 함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 장애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아동은 생활전반에 걸쳐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 아동의 장애는 부모에게 심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학대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 질 수 있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에 비해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Ammernan, 1997, Rodriguez & Murphy, 1997).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비장애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은 학대를 경험하는 경우가 10배 이상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Sobsey et al., 1997, 재인용). 결국, 아동의 장애와 학대는 분명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아동의 장애가 학대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일 수 있으며, 동시에 학대로 인해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와서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연구들도 학대와 관련하여 장애아동이나 빈곤아동 등 취약계층의 아동보다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으로 인해 학대의 위험성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와 학대라는 이중의 고통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서라도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장애와 학대발생과의 관계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장애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 및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2.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스트레스를 현대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Dore, 1993, 손정영, 1998).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며,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을 가지고 스트레스에 대응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요인들에 대해 적절하거나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는 더욱 심화되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가정 내에서 폭력의 형태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Farrington(1986)은 가정폭력을 스트레스이론에 의해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 가족의 스트레스 경험 : 대부분의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성공, 부부관계 등 일상적인 일들로 인해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2)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부적절한 반응 : 각각의 가족구성원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기술, 능력, 활용자원 등에 있어 모두 상이하며, 가족구성원이나 가정의 성격에 따라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3)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정당화 : 가정폭력은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즉,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의 혼합에 의해 가정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General Stress Theory-Tzeng (1991), Theories of child abuse and neglect에서 인용, p.67.

Tzeng(1991)은 스트레스의 발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요인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족이 스트레스 요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능력에 관한 것이다. 그리하여, 가정에 따라 스트레스 요인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다른 가정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Farrington(1986)은 현대사회가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가정의 스트레스는 점차 심화될 것이고, 따라서 가정폭력은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학대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합의된 구체적 정의나 연구는 없지만, 김기현과 강희경(1997)에 따르면, 양육스트레스를 '구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체계가 직면하는 발달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모가 가지는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 행동발달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문제행동 또는 문제상황에 있는 아동들의 경우 부모의 분노와 좌절을 가중시킴으로써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된다. 즉, 양육과정에서 부모 개인의 특성과 아동의 특성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게되며, 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역기능은 다시 아동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Chan(1994)의 연구나 Rodriguez와 Green(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분노의 표출을 아동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Holden와 Bancz(1996) 역시 아동학대로 고발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비롯한 가족내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로서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와의 관계는 국내의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김미희(2000)와 김지연(2001)은 그들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아동학대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지듯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양육스트레스는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며, 따라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문제에 대한 개입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은 아동학대문제를 감소 또는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보여진다.

2) 학대유발요인으로서 아동의 장애

앞서 살펴본 스트레스이론에 의하면, 아동학대문제는 부모 또는 양육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표출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부모에게 보다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학대의 위험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장애아동 양육의 경우 부모로 하여금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며,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애아동과 학대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여러 측면의 추가적인 부담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들은 때로는 가정을 위기상태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긴장원(stressors)이 될 수

있다. 장애아동부모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녀의 장애로 인한 실망과 좌절 등의 심리적인 불안정, 장애아동 양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아동의 장애특성으로 인해 수반되는 지속적인 보호 등의 일상생활상의 부담,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외 및 차별, 향후 장애자녀의 교육 및 치료 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포함될 수 있겠다.

실제로 Fuller와 Rankin(1994)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일반교육을 받는 아동을 둔 부모에 비해 학습 및 정서장애를 가지고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의 부모들은 심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Baker와 McCal(1995)의 연구도 장애아동부모가 겪는 양육스트레스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연구로 배인숙의 연구(1993)나 안범현(1999)의 연구에서도 장애아동을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장애아동부모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Goldson(1998)은 학대를 양육자에 대한 의존(dependency)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의존(dependency)은 학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제한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안전, 영양,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아동에 비해 양육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관심과 보호를 요구한다. 이러한 부담은 양육자로 하여금 심한 스트레스를 갖게 함으로써 비장애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은 학대의 위험성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들은 의존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학대의 발생과 관련되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아동들의 일반적 특성인 의사소통의 제약, 자기보호능력의 부족,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적,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 등은 이러한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요인들로 보여진다. 특히, 서구사회에 비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함께 장애아동부모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매우 부족한 한국적 현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낮은 가치평가로 인해 장애아동들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의 반복은 부모의 스트레스 유발과 함께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그들의 학대 가능성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Sobesky, et al., 1997).

Goldson(1998)은 장애가 학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나 긴장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인식되어 왔다. 둘째, 우리 사회는 차이(differences)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우리사회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부모는 자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넷째, 장애아동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나 양육은 덜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학대와 같이 아동에 대한 해로운 행위가 용납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장애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하여 장애아동은 아무런 감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사람들은 부모 및 양육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함부로 하더라도 장애아동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제공받을 때에 장애부모들이 가지는 스트레스나 좌절, 어려움 등은 부모로 하여금 장애아동을 좌절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유발하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아동의 장애와 학대와의 관계를 부모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입증하

고 있다. Rodriguez와 Murphy(1997)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을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의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의 장애와 관련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Ammerman (1997)은 문헌연구를 통해 학대가정에 대한 사정과 치료에 있어서 아동의 장애가 갖는 역할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에 비해 학대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아동의 장애는 부모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통한 스트레스유발로 결국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학대와 관련하여 아동의 장애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아동보호기술훈련, 부모교육훈련, 분노 및 스트레스조절훈련, 레저활동훈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들이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제공은 장애아동부모의 긍정적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Kotch(1997)는 그의 연구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망에 의해 장애아동부모의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아동학대발생 가능성이 감소 또는 제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송주미(1992)나 윤혜미(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인 지지에 의해 완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아동이 가지는 장애는 아동으로 하여금 의료, 사회, 교육체계에서도 그들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어지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체계의 희생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부모의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학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많은 장애아동들은 폭력이 그들의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열악한 사회경제적인 상태의 가정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Goldson, 1998), 학대받는 아동들이 5세 이하의 어린 아동들이 상당수를 차지함으로써(Sullivan & Knutson, 1998), 특히 장애를 가진 유아들에 대한 초기개입과 예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장애아동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13세 미만(초등학교 재학생까지 포함)의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표집대상을 서울, 경기, 강원지역 등으로 확대하여 이곳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기관, 특수학교, 지역사회 부모회 등의 협조를 얻어 조사원이 장애아동부모에게 연구의 목적 및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다음 모임에서 설문지를 회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2월까지로 총 400부가 배포되었으나, 150부만이 회수되었다. 이러한 낮은 회수율은 장애와 학대문제를 관련시킨다는 사실

에 대한 장애아동부모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분석 가능한 150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기존의 척도를 활용하여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연령, 수입, 학력, 사회활동 참여 여부, 정부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그리고 자녀의 장애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된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32 문항 중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22문항을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높은 점수를 나타낼수록 자녀양육의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부분은 아동학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장화정(1998)이 개발한 아동학대 척도 중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학대행위의 정당성을 묻는 83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의 영역을 포함하여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한 행동이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1점으로부터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5점에 체크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높은 점수를 나타낼수록 아동에 대한 학대유발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는 양육스트레스 척도가 $\alpha=.9141$, 아동학대 척도가 $\alpha=.9892$ 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조사를 위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한 기술 통계를 통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와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Pearson r을 통해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정도와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단계식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여 종속변인이 양육스트레스인 회귀모델(모델 I)과 학대행위인 회귀모델(모델 II)을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각의 종속변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

4.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2.5세로 비교적 젊은 부모들이 조사에 많이 참여했으며, 특히, 응답자의 69.3%가 40세 미만으로 이는 대부분이 저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고 보여진다. 이는 자녀양육의 경험부족 및 사회, 경제적으로 아직 안정되지 못한 계층인 젊은 부모들이 장애자녀를 키우면서 겪을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게 한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중 아버지가 8.7%인데 비해, 91.3%가 어머니들로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은 대부분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조사가 지역사회복지관이나 특수학교, 부모회 모임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을 고려한다고 할 지라도 장애자녀의 교육이나 치료와 관련해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부모들의 교육정도는 고졸이하 44.7%, 대졸 42.7%를 차지했으며, 대학원이상도 3명이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89.3%) 정상적인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10.7%만이 이혼, 사별 등의 상태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월수입과 관련해서는 3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2.7%나 되는 반면에,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36.0%나 차지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계층이 포함됨으로써 이들의 수입이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장애아동 부모들의 사회활동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41.3%는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사회적인 모임이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58.7%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응답자중 34.7%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실은 장애아녀를 둔 부모들의 사회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특히, 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장애자녀를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장애자녀의 양육에서 오는 부모자신의 스트레스 감소 및 심리적 지지를 위한 사회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데(양숙미, 2000), 이를 지원할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부족한 현실에서 부모들의 양육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예: 보장구 지원, 세금감면 등)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8%만이 '받고 있다'고 했으며, 62%는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병원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2%가 '이용하고 있다'고 했으나, 38%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정부지원과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장애아동부모들이 이러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장애아동을 위한 정부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즉, 장애아동을 둔 많은 부모들이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

보의 부족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장애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 함으로써 보다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아동 및 장애인을 둔 가정에 대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자녀의 장애유형에는 지속적인 보호가 요구되어지는 정신지체(29.3%)와 발달장애(16.0%)가 가장 많아 부모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루 중 장애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균 12.4시간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8시간 이상이 66.7%를 차지했으며, ‘하루종일(24시간)’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0.7%나 됨으로써 장애부모들은 장애자녀와 함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어리고 장애의 심각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장애아동을 보호해 줄 사회적인 지원체계의 미비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연 령	평균연령 32.5세(표준편차 13.98)
성 별	父 13(8.7%) 母 137(91.3%)
교육정도	고졸이하 86(44.7%) 대졸 61(42.7%) 대졸이상 3(2%)
결혼상태	결혼 134(89.3%) 이혼 및 사별 6(4%) 동거 및 기타 10(6.7%)
월수입	100만원이하 54(36.0%) 200-300만원 47(31.3%) 300만원이상 49(32.7%)
사회활동 참여여부	참여 62(41.3%) 불참여 88(58.7%)
정부지원 여부	예 57(38.0%) 아니오 93(62.0%)
장애인 복지 이용여부	예 93(62.0%) 아니오 59(38%)
자녀의 장애유형	정신지체 44(29.3%) 발달장애 24(16.0%) 지체장애 19(12.7%) 청각장애 14(9.3%) 시각장애 14(9.3%) 기타장애 35(23.4%)
자녀와 보내는 시간	평균시간 12.46(표준편차 8.9)

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대행위에 대한 기술통계

<표 2>에서 보여지듯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전체문항 점수의 합산을 통해 계산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는 57.3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능한 수치가 22점에서 88점까지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중간 값(55점)보다 큰 값으로, 장애아동 부모들이 비교적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중 70점 이상을 보이는 응답자도 12.3%나 차지함으로써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서 전체문항의 합산을 통해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에 관한 점수가 산출되었다. 전체 평균점수는 104.99로 나타났으며, 이는 산출 가능한 점수를 83-415라고 했을 때 비교적 낮은 점수로 장애아동 부모들은 학대행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강조 및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한국적인 문화에 의해 부모들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인다는 일반적인 연구들과(이 배근, 1993, 채혜정, 1993)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장애자녀를 키운다는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하고 있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의식적인 자기방어의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후에 보다 엄격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장애아동부모들은 학대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성학대행위와 비교할 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은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체벌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와 아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부모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양육 스트레스와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

	평균점수	Range
양육스트레스	57.34	27-87
학대행위	104.99	83-407 신체적 학대 30.09(23-115) 정서적 학대 32.44(26-130) 성학대 16.36(14-70) 방임 26.10(20-100)

3)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장애아동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정부지원여부($r=.174^*$), 장애인복지 이용여부 ($r=.168^*$)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장애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자원(예: 보장구 지원, 세금감면 등)여부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자녀 양육

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장애아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앞으로 보다 확대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사회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들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애아동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절대적인 확충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장애에 대한 재활의지를 강화 시키고, 부모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모들은 장애자녀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될 것이다.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부모의 교육정도($r=-.170^*$), 부모의 수입($r=-.162^*$), 사회활동 여부($r=-.216^{**}$)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먼저, 부모의 교육수준과 수입은 학대행위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입이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것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낮은 교육수준과 저수입으로 인한 열악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은 장애자녀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킴으로써, 부모 스스로 자녀에게 가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갖게 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경우 학대행위에 대해 보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장애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자신의 사회활동이나 관계가 제한 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되어질 수 있겠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사회활동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일시적이거나 벗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또한 사회활동을 통해 장애자녀를 위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의 확대와 함께 장애자녀 부모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등 각종 조직 및 모임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낮 시간 동안 장애자녀를 돌봐줄 사회복지관련서비스 확충 등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리적, 사회적 휴식을 가능케 함으로써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교육정도	수입	사회활동 여부	정부지원 여부	장애인복지 이용여부
양육스트레스				.174*	.168*
학대행위	-.170*	-.162*	-.216**		

* $p < .05$

** $p < .01$

4) 양육스트레스와 학대행위에 대한 집단간 비교

장애아동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정도에 따라 부모들의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장애아동의 부모들을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두 집단으로 분리한 후,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보여지듯이,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 즉,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부모집단과 높은 부모집단은 아동학대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아동 부모들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그들이 학대행위에 대해 갖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정도와 학대행위유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표 4> 양육스트레스와 학대행위에 대한 집단간 비교

	T 값	Sig.
학대행위	-2.819	.004*

* $p<.05$

5) 회귀분석결과

장애아동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식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단계식 다중회귀분석은 여러 개의 독립변인 중에서 종속변인과의 관계가 약하거나 없는 독립변인은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종속변인과 가장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독립변인을 회귀모델에 투입시킨다. 따라서, 단계식 다중회귀분석은 회귀모델이 여러 개의 독립변인을 가지고 있을 때 종속변인과 관계의 강도가 큰 순서를 알 수 있으며, 또한, 단계에 따른 종속변인의 변화량도 알 수 있다(Cohen & Cohen, 1983). 본 연구의 경우 단계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종속변인이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인 회귀모델(모델 I)과 종속변인이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인 회귀모델(모델 II)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모델에서 종속변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대유발요인의 발견을 통한 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표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이 양육스트레스인 회귀모델(모델 I)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p=.010^*$).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여부는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44% 설명하고 있으며($R^2=.044$), 이는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종속변인이 학대행위인 회귀

모델 (모델 II)에서는 부모의 사회활동여부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독립변수로 나타났고 ($p=.008^*$), 설명력도 46%나 되었다 ($R^2=.046$).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여부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독립변인으로 나타났으며 ($p=.039^*$), 종속변수인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를 10.2% 설명하고 있다 ($R^2=.102$). 결국, 장애아동부모의 스트레스 및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와 부모의 사회활동여부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장애아동부모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Sig	R ²
모델 I: 양육스트레스	장애인복지 이용 여부	.209	2.599	.010*	.044
모델 II: 학대행위	사회활동 여부	-.216	-2.685	.008*	.046
	장애인복지 이용여부	.166	2.086	.039*	.102

* $p<.05$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과 비교할 때 학대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다양한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규명하여 미연에 제거 또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애아동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로 인해 비교적 심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태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와의 관련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장애아동부모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사회적인 개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부모의 학력, 수입, 사회활동여부, 정부의 지원여부,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여부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부모의 사회활동여부는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대행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체계의 다양화, 교육 기회 증진,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 경제적인 지원 등은 생활상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유용할 것이며, 이와 함께 보다 다양한 사회적인 서비스체계의 개발은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

의 확대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Goldson(1998)은 장애아동 및 그들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임신 전부터 각종 교육 및 의료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및 체계를 제도화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로, 이미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장애에 대한 치료 및 재활, 가족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각종 옹호활동의 전개, 각종 지원체계강화 등을 통해 학대나 방임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장애아동부모의 긍정적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사회적 지지를 통해 부모는 아동양육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받음으로써 자녀에 대한 태도나 부모역할만족도가 향상될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인 지지에 의해 완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송준미, 1992, 윤혜미, 2000). Kotch(1997) 역시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량의 정도는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량에 의해 장애아동부모의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아동학대발생 가능성이 감소 또는 제거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장애아동부모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과 함께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학대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관련된 분야의 모든 종사자들이 아동학대문제를 중요한 관심사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사, 간호사, 교사 등은 업무의 성격상 아동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으므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이들을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지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들이 가장 먼저 학대아동을 발견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의 경우는 아동의 가정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와의 관계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자신을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관련분야의 종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부모들의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부정적으로 나타나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의식적인 자기방어의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정교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아동이 가진 장애의 유형 및 정도는 자신에 대한 방어 및 보호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이므로, 장애의 유형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아동학대의 유형도 다를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아동 및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영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기현·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 pp. 141-150.
- 김미희. 200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우석대 석사학위 논문.
- 김지연. 2001. "부모의 생활스트레스와 아동학대의 관계분석", 대전대 석사학위논문.
- 박명숙. 2000.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생태체계적 관점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5, 95-110.
- 배인숙. 1993. "자폐아동의 적응행동 수준과 그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정영. 1998.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주미. 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행동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이배근. 1993. "한국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법현. 1999.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성격적응 유형과 양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와 상담개입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 양숙미. 2000. "정신지체 성인자녀의 부모를 위한 역량강화 집단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혜미. 2000. "부모교육과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부모역할 만족도 및 체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43, pp. 246-269.
- 장화정. 1998. "아동학대평가 척도개발",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채혜정. 1993.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부모, 자녀, 전문가의 지각",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Ammerman, R. 1997. "Physical abuse and childhood disability : risk and treatment factor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and Trauma*, 1, pp. 207-224.
- Baker, D. & McCal, K. 1995. "Parenting stress in parents of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parents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4, 1062-1074.
- Chan, Y. 1994.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mothers who physically abuse their children in Hong Kong", *Child Abuse & Neglect*, 18, pp. 261-269.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s Publishers.
- Dore, M. 1993. "Family preservation and poor families : When 'homebuilding' is not enough", *Families in Society*, 74, pp. 545-556.
- Ferrington, K. 1986. "The application of stress theory to the study of family violence : Principle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 pp. 131-147.
- Fuller, G. & Rankin, R. 1994. "Differences in levels of parental stress among mothers of learning disabled, emotionally impaired, and regular school childre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8, pp. 583-592.
- Goldson, E. 1998.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2, pp.

663-667.

- Holden, E. & Bancz, G. 1996. "Child abuse potential and parenting stress within maltreating famili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1, pp. 1-12.
- Kotch, J. et al, 1997. "stress, social support, and substantiated maltreatment in the second and third years of life", *Child Abuse & Neglect*, 21, pp. 1025-1037.
- Rodriguez, C. & Green A. 1997. "Parenting stress and anger expression as predictors of child abuse potential", *Child Abuse & Neglect*, 21, pp. 367-377)
- Rodriguez, C. & Murphy, L. 1997. "Parenting stress and abuse potential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ild Maltreatment*, 2, pp. 245-251.
- Sobesy, D., Randall, W., & Parrila, R. 1997. "Gender differences in abused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Child Abuse & Neglect*, 21, pp. 707-720.
- Sullivan, P. & Knutson, J. 1998.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disabilities in a hospital-based epidemiological study", *Child Abuse & Neglect*, 22, pp. 271-288.
- Tzeng, C., Jackson, & Karlson. 1991. *Theori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 Differential perspectives, summaries, and evaluations.* Connecticut: Praeger.

Parenting Stress as a Predictor of Child Abuse Potential

Park, Myung-Sook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angji University)

Many studies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the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y. It means that disability is a risk factor for ab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renting stress as a predictor of child abuse potential. For this study, 150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recruited. A personal questionnaire, parenting stress index, and potential factors of child abuse were responded. According to the results, parent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ported high parenting stress and also parenting stress significantly affected parents' attitudes toward child abuse. Income, level of education, social involvement, governmental support, and social services for disabled were related to parenting stress and child abus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the variables of social involvement and social services for disabled 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in explaining parenting stress and child abuse. This study suggests that social supports and services for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provided.

Key words : child abuse, disabilities, parenting stress,
child protective services(CPS), social supports.

[접수일 2002.9.10 게재확정일 2002.10.7]